

지 상 법 석

# 세상이 따듯해져요

## “욕심 버리고 마음그릇 비워야 ‘물건’이 담깁니다 그런데도 부처님께 ‘달라’ 소리만 합니다”

계(五戒)를 살펴봅니다. 오계는 ‘산 목숨 죽이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술마시지 마라’는 것으로 이것은 전체 윤리·도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팔관계를 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스님들 비구 250개 비구니제 348개 모두도 ‘~해라, ~하지마라’ 등으로 전체가 윤리성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논쟁또한 그렇습니다. <능엄경>에 보면 ‘한 국토에 생(生)하는 자, 한 나라에 태어나는 자, 전체가 동업(同業) 중생이다’ 했습니다. 동업중생이란 업을 같이 지었기 때문

물건이 담깁니다. 또다른 예로, 여러분은 모두 보살계를 받았을텐데 경전 구절에 ‘부모·스승·삼보를 효순하는 법’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부처님이 설하신 <부모은중경>에 보면 ‘나를 낳아 키워 준 부모를 양 어께에 모시고 수미산을 들고 돌아 이 몸이 남아 미진이 될지라도 부모 은덕은 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하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세상이니 것입니다. 가끔 제주도 법회차 그곳에 들렀다가 들었는데 4,5년전부터 노인들을 제주도에 버려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극락을 가고자 하다면 욕심부터 버려라. 성불을 하고자 하면 욕심을 버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짚에 오면 법회 시작전이나 끝난후에 엎드려서 빈다게 ‘달라’ 소리만 합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부처님은 “욕심이 짙은 사람은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면 네 목숨이 길어질 것이다. 병든 자를 구원하면 네 병이 없어지고 건강해질 것이다. 복이 없는 자는 복덕 종자를 심어 배풀어라. 배풀면 온다. 결과의 열매를 스스로 거둔 것이다”고 윤리·도덕의 실천을 말씀 하셨을 뿐 ‘내에게 오나라, 내

이다’라며 지나치지는 않습니까? 설령 그렇다고한들 악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 더 많은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조금 더 신경써 악한 몇몇 사람을 교화시키면 이 사회는 밝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행하는 사람이 윤리도덕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참다운 불자가 되는 길입니다.

부처님 법에는 발로참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드러낼 것을 확 드러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발로참회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살때 집안이 화평하게 됩니다. 하나가 될때 비로소 세상이 확 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상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반조하지 아니하면 경을 아무리 봐도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실천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이 그릇된 세상을 바로 잡을 이는 부처님 밖에 없습니다. 또 부처님 법을 전하는 스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를 부처님 법으로 밝히지 아니하면 영영 이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법문을 듣는 여러분이 모두 하심해서 포교

## ‘거리지복’ 그만 바라고 ‘보살복’ 지어야 참 불자 남의 허물 꾸짖기 전에 자기 잘못 먼저 살펴야

에, 똑같이 한 나라에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동업중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업으로 태어난 우리 중생이 서로 치고 박고 얼굴을 붉혀서 되겠습니까 남복이 가로막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장이 높이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각각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남북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능엄경에서는 ‘동업중생’ 화엄경에 ‘일체중생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일체중생의 숙원하는 바를 따라 배풀어 주는 것이 가히 다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험악한 세상을 풍요롭고 따듯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또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해 중생업이 다하고, 중생번뇌가 다하더라도 나의 원은 다 할 날이 없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배풀어 주는 이 생각, 허공계에서 중생업·번뇌가 다 하더라도 내 원이 다 할 날이 없다는 광대무변한 보현보살의 행원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행하려고는 아니하고 욕심 부리리만 안고 있으시겠지요. 욕심을 버리고 텅빈 마음으로 법문을 들어야 제대로 들릴 것입니다. 마음 그릇을 먼저 비워야

고 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효도관공시켜 준다고 제주도로 데리고 가 ‘어머니, 아버지 여기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뭐 마실 것 좀 사 올게요’라고 말하고는 그 길로 내배, 자기들만 비행기타고 와 버리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만이 아니라 설악산, 지리산, 공원지대마다 노인들을 갖다 내 버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 버리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 보세요.

물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끔 잔소리로 젊은 사람을 귀찮게해서 그렇다고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자식된 수도 그렇게 저버려서 되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지나가는 말로 한번 들었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부처님 말씀만이 아니라더라도 세계 4대 성인들의 명언을 한번 들었다면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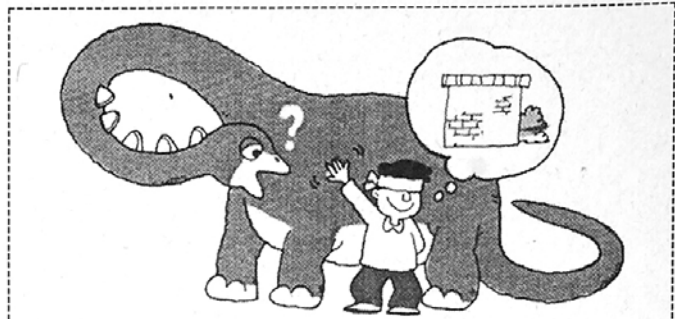
대학교수가 자기 아버지를 죽여 놓고 허장성쇠로 곡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과욕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회를 부처님 법으로 밝히지 아니하면 영영 어두운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모두 하심해서 부처님 법을 전달하며 사세요  
하루 아침에 세상이 달라집니다”

가 복도 주고, 명도 주고, 모든것을 나눠 주리라’처럼 ‘오나라, 준다’는 요행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2천만 불자는 ‘달라’ 소리 하는 사람만 많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행이 옮기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포교를 못한 스님들에게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짧은 실천력에도 그 원인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법문을 실천하려 하지 않고 ‘그냥 하는 말

사가 돼 보세요. 하루 아침에 이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른 소리만 하고, 부처님 법을 전달하며 사세요. 그것이 부처님 뜻을 이어 이 세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밝히는 선구자가 돼야 하고 인도자가 돼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신 것은 그 나름대로 다 뜻이 있어 나왔을테니까요.



우리가 흔히 끝없는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주야말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끝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그 우주의 일부를 우리는 밤하늘에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밤하늘의 모습은 무수히 많은 다른 사건들의 영상이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지난 번에 논의하였다.

나에게 지금 그곳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들은 사실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그곳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다. 그러나 우주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는 그나마 빛을 발하는 물질에 관한 것이다. 우리 우주에는 우리 눈으로 관측할 수 없는 물질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우선 우주에는 어느 곳에도 널려있는 성간 물질이 있다. 아주 낮은 온도의 성간 물질은 그 자

각각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3 양형진 幻影의 밤하늘 II

는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환영일 뿐이며 진정한 세계의 모습은 무시무종하는 것이어서 오직 연기(緣起)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우주만물은 인연 화합하며 끝없이 변화 일체를 ‘있고 없음’ 아닌 중도세계로 봐야

체로 빛을 발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간 물질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전체가 형성된다. 비가시적인 것이 인연이 화합하면 가시적인 것이 되고, 가시적인 것은 인연이 흩어지면 비가시적인 것으로 변한다.

성간물질인 수소 원자를 우리의 시각으로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양자역학에서의 초미세 구조의 갈라짐 때문에 수소 원자는 21.1cm의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물리적인 관측은 가능하다.

그러나 우주에는 이러한 물리적 관측이 불가능한 물질이 있다. 오직 간접적인 추정만이 가능할 뿐, 직접적인 관측이 원리상 불가능한 이러한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주에는 이러한 암흑물질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물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라 고 현대 과학이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만 볼 수 없는 것이든 그 모든 대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 가고 있으니, 시작도 끝도 없는 무시무종의 세계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세계의 전체라고 생각하

하나의 더 큰 환영을 마음 속에 그려내어, 그것을 삼키고 그것에 가까이 종속되는 그릇된 견해일 뿐이다. 이는 모든 유희법이 다 마음에 의지하여 나타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박을 향하여 어지럽게 구하는 중생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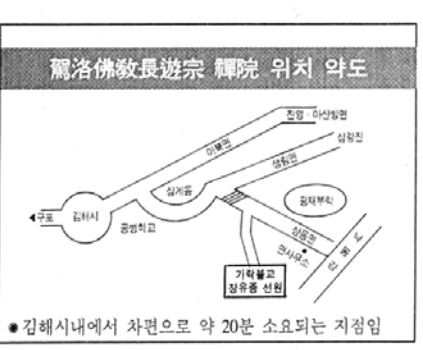
우리는 흔히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지는 세계를 실재하는 세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하나의 환영일 뿐이며, 그나마 볼 수 있는 물질이란 전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무언가 있다는 중생의 잘못된 견해를 타파하기 위하여 일체공을 설하시고, 아무 것도 없다는 중생의 잘못된 견해를 타파하기 위하여 일체유를 설하시며, 또한 중생이 이 양극단에 집착할까 두려워 중도를 설하신다. 있는 것 같아도 있는 것이 아니며 없는 것 같아도 없는 것이 아니다. 진여실상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있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비유 비유 비비유 비비무(非有非無非非有非非無)이어서 일체법에 중도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 가락불교장유종 선원 개원 대법회 및 봉불 점안식 초청

귀의삼보하옵고, 국화향기 그윽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편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소매깃만 스쳐도 인연이리는데 우리 사람들은 몇 생을 만나, 서로서로 탁마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가락사의 일부인 가락불교를 복원하기 위하여 영남의 제일명산, 신선이 기유한 성지, 중무산 중원에 서기 1994년 3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대웅전, 장유선사영정각, 장암보전, 공양정 등 건물네동을 준공하고, 상기와 같이 본 선원 개원 대법회 및 봉불 점안식을 봉행코저 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두루 참석하시어 무한한 공덕인연을 맺어 주시기 바리면서 이에 초청합니다.

- 아 래
- 일시 : 서기 1995년 10월 27일(금요일)
  - 봉불점안식 : 오전 10시
  - 개원대법회 : 오전 11시
- 장소 : 경남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1050-1번지(광재부락) 가락불교장유종 선원(약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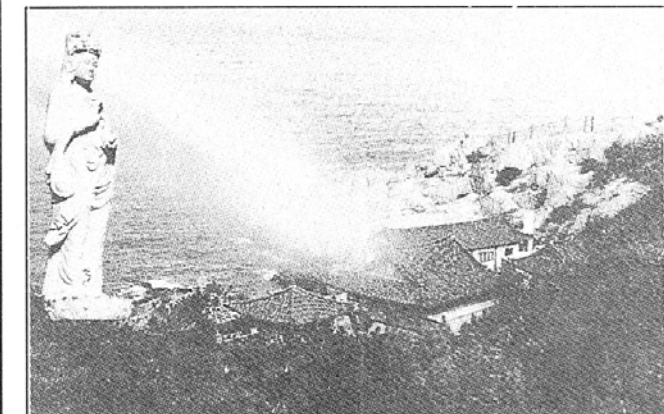
1995년 10월 일

가락불교장유종 선원 창건불사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용채  
주 지 김현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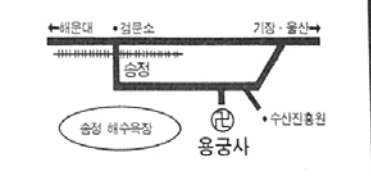
\* (연결전화) 김해 선원  
TEL : (0525) 23-6174~5  
부산사무소  
TEL : (051) 635-4111~4

##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海水觀音 방생도량

해동용궁사는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바다에 펼쳐진 절경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진신(眞身)이 상주하시는 관음기도도량이며 방생도량입니다. 금번 용궁사에서는 관음대불을 봉안하옵고 많은 기적과 불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궁사는 특히 삼사순례나 방생법회를 하시는 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하오니 전국의 주지스님과 신도님께서 방문하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무료  
대형주차장 완비  
방생물 예약 준비해드림  
해운대-용궁사 10분 거리



海東龍宮寺 기도영험도량  
용궁사 오시는 길 해운대 달맞이길 → 승정 해수욕장 → 용궁사 (051)722-7744, (0) 722-7755